

# 노천식당 흡연금지법으로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

말레이시아사무소



## 늘어나는 흡연사망에 강경대책 마련

- 말레이시아에서는 길거리나 야외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간접흡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말레이시아 성인 기준 흡연율은 약 23%로, 아세안 국가 중 여섯 번째로 흡연율이 높다. 말레이시아 흡연 사망자는 매년 20,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15~24세 흡연자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각종 금연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조만간 ‘노천식당 흡연금지법’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노천식당인 마막(Mamak)\*, 호

\* **마막(Mamak)** : 동남 아시아 특유의 노천음식점으로 전통요리를 제공

\*\* **호커(Hawker)** : 우리나라의 포장마차와 유사한 길거리 음식점

커(Hawker)\*\*에서의 흡연이 올해 12월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동시에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음식점 외에도 병원, 공중 화장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사무실 또는 실내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확대해나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링깃(약 269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구속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대다수 말레이시아인들이 이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흡연권을 주장하는 반대의견도 소수 나타나고 있다.
- 흡연금지법 발효와 함께 말레이시아 외식업체의 풍경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구역으로 거듭나면서 비흡연자들의 발길이 잦아지겠지만 흡연자들은 외면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영국에서는 흡연 금지령이 도입된 후 11,000개의 술집이 문을 닫기도 했다.

## 한국식품의 건강한 이미지구축 필요

-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과 우려는 단순히 금연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식습관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웰빙열풍이 이제 말레이시아 전역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한국 식품의 건강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려는 외식업체들은 건강식단과 청정구역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마케팅을 통해 흡연금지법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